

사설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 절실

한국 불교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표류를 거듭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불교대학 발전위원회가 지난 3월 2일 발족하여 학장을 주축으로 소속 교수들이 3개월간 연구했다는 발전 방안이 5월 18일 기획인사처에 제출되었으나 2개월이 지났는데도 사람에서 잠자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구 성과에 대한 가치가 없어서인지, 아예 발전의지조차 없어서인지 궁금했는데, 늦게나마 학교당국에서 연구보고서에 대한 세부 평가 및 관련 절차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니 다행스럽다.

학문의 전당이 책물 사건으로 멩들고 교수층의 문제로 설왕설래할 뿐, 그 어떤 대책도 속 시원히 나오지 않으니 학교 당국뿐만 아니라 재단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불교대학의 발전은 단순히 한 단과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1600여년을 견디며 살아온 한국 불교의 숨결이며, 한국 불교 거대 종단인 조계종의 체면이다.

동국대학교가 아무리 거대하게 발전한다고 해도 불교를 배고 나면 허수아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동국대의 주체는 교수와 학생임을 틀림

없다. 불교대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동국대의 운명과 한국 불교의 미래까지 기대할 수 없으며, 한국의 천만 불자들이 동국대학교에 거는 기대 또한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에는 조계종 승려 자격의 이사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불교대학의 입학생 중 학부제가 시행된 1996년부터 70명도 안 되는 입학생 중 해마다 평균 15~16명씩 전과로 빠져나가며, 여기에 승려학생 17명을 제외하면 실제 한 학년의 일반 재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하다. 물론 졸업 후 생존을 위한 진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불교 30여 명도 안 되는 이들의 장래도 수용 못할 불교라면 한국불교의 포교사업과 불교 학문의 발전도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인력이 1년에 1만명을 초과하고 있다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불교대학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히 노쇠해져가는 불교 신도만을 바라보고 지낸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불교대학의 발전은 하루가 시급하다. 당장 내년 입시부터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역신도회 구성 왜 어렵나

불교가 바로 서려면 사부대중이 각각 맡아 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사부대중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에 의해 원활한 교단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불교계 교단 내부의 끊임없는 갈등과 부조리, 그리고 사회적인 위상 실추의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부대중이 각각 그 역할을 자각하고 제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이 재가자의 제자리 찾기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상대적으로 출가자의 본분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정립되는 등, 한국 불교의 활성화에 커다란 순기능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 아래 재가자의 조직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조계종 광역신도회의 구성 움직임이 그 첫 단계부터 참여와 호응의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지난 4월 열린 서울 광역신도회 창립을 위한 간담회에 사찰신도회 3곳, 신도단체 3곳만이 참여하여 중요 안전에 대한 논의들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은, 맥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사찰 주지 스님들의 무관심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사부대중의 역할 인식에 대한 무

리 불교계의 뿌리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엔 재가자의 조직 활성화가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위협하는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스님들의 인식도 있다.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없이 오로지 스님들만 바라보고 있는 재가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있다. 이것이 재가자 조직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건강한 종교 교단은 그 구성원들이 모두 그 종교의 주체가 될 때 이루어진다. 재가자들이 단순한 교회의 객체로 있게 되면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한국불교를 멩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스님들은 지금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재가조직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도 결국 출가인들의 책임임을 바로 인식하고 재가자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재가자들은 재가자들대로 스님만 쳐다보는 안이한 태도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자신의 입무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바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도회의 구성임을 인식하고 그 큰 틀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민영교도소, 이젠 '강건너 불' 아니다

한국교정사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평가되는 민영교도소 도입이 관련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영교도소 도입은 우리나라 교정사 뿐 아니라 종교계의 지형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세 확장의 의미도 있었지만, 교정·교화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하기 때문이다.

◇민영교도소 추진 경과

98. 4. 26	법무부, 김대중 대통령의 교도소 파면 수용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민영교도소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
98. 9. 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98. 11. 27	법무부, 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98. 12. 24	법무부, 교도소 파면 현상을 해소하고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영교도소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
99. 7	법무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99. 8. 13	조계종총무원, "특정 종교단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 제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냄
99. 12.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공청회 통과
99. 12. 29	조계종, 불교계 등의 의견이 무시된 채 제정된 민영교도소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논평 발표
2000. 1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올 6월까지 부지의 건물을 확보하고 50여억의 설립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2000. 7. 3	조계종총무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와 문화관광부에 보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포괄적이어서 이후 다른 해석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보란을 요구
2000. 7. 10	법무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한국교정사의 획기적인 변화 계기가 될 민영교도소의 도입은 우리나라 교정사뿐 아니라 종교계의 지형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은 춘천 교도소 전경.

종단 재원마련 '버거운 짐' 소규모 특수교도소도 방편

동을 벌인 스님들과 불자들이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총무원 내의 논의를 벗어나 논의라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도 불교가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민영교도소는

강건너 불구경할 꺼리만은 아니다. 반드시 교도소를 지을 필요도 없다. 교정 업무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대비하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회적인 소외의 도적인 범죄로 표출하려는 '복수심리'를 막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민영교도소 제도 시행에 부처

재소자 교화행정 '종교의 힘' 필요

혜철스님 <한국불교 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

내년 7월이면 민영교도소 제도가 시행된다. 불교계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시기이다.

필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 산하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별다른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불교계가 재소자 교화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 염려가 된다.

교정기관의 힘만으로 재소자를 교화해 민주시민으로 거듭 나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종교계의 민영교도소는 개방교도소나 경제사범 등을 상대로 한 교화보다 청송보호감호소의 감호자들이나 향정신성 마약사범, 상습범죄, 조직폭력배, 상습 성범죄, 소매치기 등 정신적으로 자기의 감성적인 면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범들에 대해 종교적 관점에서 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첫째 현재의 교정기관에서 하는 역할 중에 일부부

를 민간에 위탁하는 일이다. 특히 교화상담, 분류심사, 면회접수 및 집행, 물품접수, 영치금접수, 서신검열, 작업장 관리, 사회견학,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 등의 업무를 상당기간 같이 수행하여 업무능력을 기르고 청송보호감호소 같은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인권단체에서의 목소리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 종교단체가 시설을 하고 운영비와 보안업무를 국가에서 지원해 종교계가 떠안는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하루속히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졸속해서 시행작정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특정종교에 편파적인 결과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속히 재소자 교화에 일대 확을 그을 수 있는 민영교도소 운영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누가' 보다 '어떻게' 운영하나 중요

이윤호 교수 <경기도 교정학과>

교정의 민영화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징벌에 관한 문제와 수용자 인권침해 및 기타 교정사고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징벌권의 행사는 국가에 귀속되며, 재소자의 권리는 오히려 확대, 개선될 수 있고, 무력의 사용은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민영교도소의 운영결과 밝혀지고 있다.

또 민영교도소는 처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담보로 하지 않고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설의 과학화와 현대화, 운영과 관리기법의 과학화와 효율화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쩌면 교도소 민영화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형벌집행권의 위임이 아니라 단지 국가에 의해서 결정된 형벌을 집행하는 형벌집행만을 위임하는 것이며, 형벌을 통한 이윤의



추구는 교도작업을 위한 유용한 이윤의 추구를 공공 교도소에 서도 실시하고 있어서 민영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정의 민영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도소를 누가 운영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어쩌면 교도소 민영화의 성공의 열쇠는 철저한 경쟁적 입찰과 계약 및 관리감독에 있다.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렇게 확보된 계약자와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는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누가 교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보다는 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불사리장엄구 특별전

금생에 다시없는 기회가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부처님 진신사리는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것입니다. 1,4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 앞에 현신한 부처님 진신사리는 금생에 두 번 다시 없는 마지막 친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 최초로 공개되는 감은사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50여 기 불탑에서 발견되어 국보·보물로 지정된 사리관련 유물 200여 점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금) ~ 7월 31일(월)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장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예약안내 : 전화 055) 384-0010 (담당자 : 이승현)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성인원, 인솔스님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신 단체 신도들에게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담긴 기념 카드를 드립니다  
\* 특별전 10만 번째 입장객에게는 본 박물관 평생무료입장권과 정성껏 마련한 특별 선물을 증정합니다



1,400여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감사의 말씀 ◆

저희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리고 있는 진신사리 친견 및 불사리장엄구 특별전이 한달 간 6만 여 명이 동참하는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참하신 모든 스님과 불자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장율사가 모시고 온 부처님 진신사리와 국보·보물로 지정된 사리장엄구가 함께 공개되는 금생(今生)에 다시없는 기회가 이제 한달 여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여러 사찰과 수행단체의 불자들이 모두 함께 하시어 무량공덕을 쌓기를 기원합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